

한전, 사우디·괌 대규모 태양광 수주 25년간 1조1400억 매출 성과 기대

신재생 사업으로 해외 매출 확대
사우디·美 괌 발전소 건설사업 낙찰
“한전 재무상황 정상화 기여할 듯”

한국전력이 사우디와 미국 괌 신재생 발전사업 2개를 잇따라 수주했다. 해당 사업의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향후 25년간 1조 1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수습조원 규모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이 해외 신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상황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라운드 5 사다위’ 태양광 건설·운영 입찰 사업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또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입찰사업’에서도 낙찰자로 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2개 연속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우디 라운드 5 사다위 태양광 건설 사업은 리야드에서 북쪽 523km에 위치한 곳에 20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한전이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기로 해 약 1조 5000억원 매출이 기대된다.

한전과 UAE(아랍에미리트)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마스다르(Masdar)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 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약 14배 크기이며,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만 370만개에 달할 정도의 초대형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 지분 기준 약 5400억원(약 3억9000만달러)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동 사업주인 마스다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추가적인 중동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괌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은 132MW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84MW 4시간용(326MWh)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연계한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해, 생산된 전력 전량을 괌 전력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동서발전, 삼성물산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괌 전력청 주

관의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며, 국내 사업주 지분 100%로 참여해 사업 성공 시 국부 창출의 극대화 가능하다. 사업을 통해 괌 전력청과 향후 25년간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해 한전 지분기준 약 6000억원(약 4억 4000만달러)의 해외 매출이 예상된다. 발전소 건설공사는 삼성물산이 전담해 추가적인 동반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미 괌에서 망길라오 태양광(60MW) 사업과 우쿠두 가스복합(198MW) 발전소를 운영중인 한전은 향후 괌 발전설비 용량의 약 54%를 점유하게 되는 노후된 내연 발전 위주의 괌 전력시장에 청정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2개 사업 수주를 계기로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전력사업 이외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한전의 재무상황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급격히 팽창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팀코리아를 구성해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중”이라며 “한국의 전력산업(K-그리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e신 시장에 성공 진출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써 그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개모차·건강식품까지... 요즘 뜨는 펫 트렌드

‘2024 메가주 일산’ 펫 페스티벌

“오픈런을 위해 일찍 나섰지만, 주차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이번 행사에는 신규 브랜드가 다수 참여해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듯하다.”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4 메가주(케이펫페어) 일산’ 현장은 견주와 강아지들로 북적였다. 이번 행사에는 펫푸드, 헬스케어, 용품, 펫보험, 리빙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으며, 약 561개 기업이 1139개의 부스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반려견을 개모차(개+유모차)에 태우고 행사를 둘러보던 A씨는 “푸드, 용품, 패션 등으로 부스가 나뉘어져 있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인기 부스에는 사람이 몰려 참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를 많이 했던 ‘BYC’ 부스를 방문했지만, 이만큼에 비해 매장이 작고 입혀 놓은 샘플도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사람 내복도 두께와 내부 소재의 차이가 다양한데, 반려견 내복은 너무 얇고 디자인도 칙칙하며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BYC는 이번 행사에서 반려견용 누



행사장에서 체험클래스가 진행 중이다. /김현 기자

빔조끼, 누빔내복, 할매내복, 할배내복, 빨간내복, 감장조끼, 커플후디 등 ‘개리야스’ 겨울 신제품을 선보였다. BYC 측은 24FW 개리야스 신제품이 사전 예약에서 품절되며 조기 마감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 섞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날 개모차와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에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특히, 동아제약의 마인드풀 펫 헬스케어 브랜드 ‘벳플’ 부스에서는 반려인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5000여 개의 벳플 체험 키트를 준비해 현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벼멸구 피해 복구에 183억 재난지원금 투입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실시

정부가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병해충의 일종)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농가 1만763호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가경영을 위한 추가 자금을 원하는 경우 연이율 1.8%대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섭씨 26.7도로 평년(23.9도)보다 2.8도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각 지자체가 지난 10월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면적이 총 2만2381헥타르(ha)로 집계됐다.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만7732ha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남(9261ha), 전북(3098ha), 충남(2979ha), 경남(1551ha)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ha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만763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소부장 현장 걸림돌 해소”

2025년도 양산성능평가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5년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공급 기업이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품의 성능을 평가받도록 지원해 소부장 산업 가치사실에서 핵심적인 품목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계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 총 365억여원이 투입된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통해 634개 기업에 국비 2220억원을 지원했고, 사업화 매출액 5839억원, 고용창출 662명 등 성과를 달성했다. SGC에너지의 경우 일본 수입에 99% 의존하던 32인치 반도체 단결정 석영 도가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외 반도체 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코트라, ‘아스트라 코리아’ 개최
미국 어플라이드 벤처스와 협업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의 투자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8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호텔에서 국내 유망 반도체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위한 ‘2024 아스트라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미국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어플라이드 벤처스와 함께 한다. 행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국내 스타트업에게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공정 설비 등 공동 인프라가 지원되며, 사업 컨설팅, 공동 개발, 투자 협력 등 다양한 협회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국내 혁신 스타트업 간 협력 기반이 마련돼 스타트업 기술의 성능 검증과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반도체·광학·인공지능(AI)·센서·공정자동화 등 첨단분야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

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신청기업 40여개사 중 기술 경쟁력, 성장 잠재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8개사를 최종 피칭 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13일~17일까지 일대일 코칭 과정을 거쳐, 행사 당일 어플라이드 벤처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및 국내 투자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사 역량을 소개하는 피칭 시간을 갖는다.

아난드카만나바르 어플라이드 벤처스 글로벌 헤드는 “한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하드웨어, 소재,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스타트업을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코트라인베스트코리아대표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산업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미세플라스틱 연구 국제 협력 추진

OECD 협력해 한국 주도로 진행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해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EHS) 사업으로 채택돼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 이번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표준물질 개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독성 시험 평가 등의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